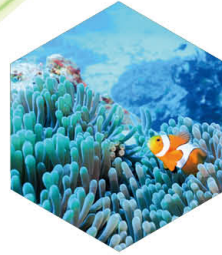


# KOSEB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Newsletter 2023



## ■ 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 여러분,  
 코로나 19가 학회회원분들의 삶과 연구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학회는 두번의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ESG” 주제로 개최된 국제 정기학술대회는 앞으로 우리 학회가 어떻게 환경생물학 연구분야를 사회적 요구 사항인 ESG개념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학술대회였다고 자평합니다.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수고해 주신 모든 준비위원과 발표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학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구양환경생물학상”의 제정입니다. “구양환경생물학상”은 구양 김주필 교수님의 환경생물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주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된 국내 최고 내분비장애물질 권위자인 한양대학교 계명찬 교수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 우리 학회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현재 국문으로 발간되는 학술지의 국제화입니다. 이를 위해 학술지 편집위원장 이혁제 교수님과 학술위원장 홍선희 교수님을 주축으로 TFT를 구성하여 우리 학술지의 Scopus등재를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춘계학술대회와 정기학술대회 그리고 한국생물과학회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술지 국제화와 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는 회원분들의 연구와 특성을 존중하는 열린 학회입니다. 환경생물학을 연구하는 모든 회원과 연구자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생물학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환경생물학회의 큰 울타리 안에서 모든 회원의 학문적 완성도와 성취를 위해 한국환경생물학회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의 따뜻하고 웅장한 기운이 회원 한분 한분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 모든 회원의 연구 활동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성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임회장님들과 임원진을 비롯한 여러 회원분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장 조 기 중

## Contents

• 회장 인사말	1
• 2022 학회소식	2
• 2022 수상소감	7
• 2022 기관 및 기업소식	11
• 2022 특별기고	17
• 학회회원동정	18
• 2023 학회사업계획	18
• 학회역사	18
• 임원명단	18
• 공지사항	19



**한국환경생물학회**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Biology

[발행일] 2023년 1월 11일

[발행처] 한국환경생물학회

061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현대벤처빌 1514호

Tel. [070]8825-5449 E-mail. koseb@naver.com Homepage. http://www.koseb.org/

[발행인] 조기중

[뉴스레터편집위원장] 이두형



## ■ 2022 학회소식

### 2022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여전히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2022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1박 2일(2022.04.21.~04.22.)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탄소 중립시대의 환경생태학 연구라는 주제로 총 76편(기조강연1편, 특별세션15편, 일반구두4편, 신진및학생구두9편, 포스터4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총 144명의 참가자가 환경생태학 연구 관련 건전한 토론과 의미있는 발표를 함께 하였다. 특히 국내 생태관련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인 국립생태원 조도순 원장님의 축사를 비롯하여, 윤순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 '기후위기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기반한 새로운 기회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도하에

'Evaluation of harmful biofouling organisms on ship hulls and international ports'의 주제로 선발 부착 생물에 대한 위해성 및 연구동향에 대한 특별세션, 고려대학교 주도하에 'Micoralgae as potential environmental remediation agents'의 주제로 미세조류 활용기술 관련 특별세션, 한경대학교 주도하에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관리기술'의 주제로 침입 외래종에 관련한 연구동향 및 기술 소개 등 3개의 특별세션을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반구두 4편 및 신진 및 학생구두 발표 9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활발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신진 최우수(위준 박사\_고려대학교)를 비롯해 학생구두발표 최우수(강민경\_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포스터발표 최우수(송재준\_고려대학교, 김혜원\_부산대학교) 등 17명의 우수 논문발표상이 수여되었다. 팬데믹 시국임을 감안해 간담회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개최지인 군산지역상품권을 간담회 대신 지급하여 학회의 개최와 더불어 지역경제 상생의 가치를 고려하였고, 많은 회원들의 이해와 호응에 성황리에 안전한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에 학회발전과 학술대회 개최에 힘써주신 조기중 회장님을 비롯한 실무위원진,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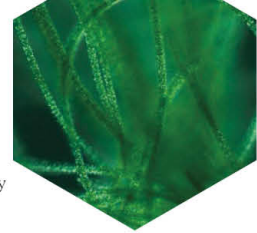
한경국립대학교 홍선희 (학술위원장)

### 제77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지난 2022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77회 한국생물과학협회(생과협, 회장 신영준) 정기학술대회가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및 호텔 인터볼고 엑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본 생과협은 생물학관련 학회연합체의 성격으로 1957년에 조직되어 생물학 분야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소속 학회들 간에 상호보완 및 협력을 유발하





며, 대외적으로는 한국 생물학계를 대표함으로써 생물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며 매년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8개 학회(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복원생태학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환경생물학회는 2017년 가입하여 환경생물학 관련 정책제안, 도서발간, 생물교육 및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연합학술대회에서는 “기후 위기와 뉴노멀 시대의 생명과학 연구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올해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학회별 학술심포지엄,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를 대면 및 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오후 시작된 학술대회에는 “AI 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통해 인공지능시대의 새로운 생물학적 분석방법이 소개되었으며, 이후 온라인으로 “신진과학자 및 대학원생 구두발표”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저녁 시간에 기조강연 발표를 기획하여 행사효율을 극대화하였다. 기조강연은 이번 학술대회의 “생물연구와 교육”이라는 핵심 주제에 맞게 초청된 3분의 국내외 저명인사의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연사인 Neil R. Ingram 교수(Bristol University, UK)는 “5-19세 생물학 커리큘럼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관해 소개하였고, 이후 Shirley S. Ho 교수(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는 “과학을 대중에게 알리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국내 연사인 심규철 교수(공주대)는 “2022년 개정된 과학교육과정에 따른 생물교육”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생물교육 방향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둘째날 학술대회에서는 4명의 기조강연과 개별 학회 학술대회 행사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으로 Harris A. Lewin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SA)는 “지구 바이오게놈 프로젝트: 생물학의 문샷 진행”을 발표하고, Konstantin A. Lutaenko 박사(A.V. Zhirmunsky National Scientific Center of Marine Biology, FEB RAS, Russia)의 “동해 연체동물의 과거와 현재의 이동, 진행 중인 변화와 예상

되는 변화”, 서민환 관장(국립생물자원관)의 “뉴노멀 시대, 국립생물자원관의 역할과 연구 방향”, 그리고 이정모 관장(국립과천과학관)의 “뉴노멀 시대 과학관의 역할과 시민의 생명과학 소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생물 연구와 뉴노멀시대의 역할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이후 개최된 한국환경생물학회 학술심포지엄 행사에서는 “농업 환경 유해인자 저감 연구”를 주제로 7분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팬데믹 3년차에 대면 및 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작년의 온라인 방식과 비교하여 참여율과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신진연구자와 대학원생 구두발표를 녹화영상으로 진행하여 발표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기조강연 발표를 2배 이상 늘려 저녁 시간대에 진행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2022년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생물학 분야 연구결과와 생물교육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온-오프라인의 질의응답을 통해 아이디어가 공유되어 팬데믹 상황의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플랫폼의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팬데믹 장기화에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대회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와 학술대회 플랫폼으로 꾸준히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과협이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길 기대한다.

상명대학교 기장서 (부회장, 한국생물과학협회 대의원)

## 2022년 한국환경생물학회 국제정기학술대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는 국제학술대회로 10월 19일 - 21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ESG”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현재 다양한 인문사회 및 과학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및 ESG 경영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국립생물자원관 서민환 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첫날은 ESG 분야의 최신 동향 및 연구 발표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중앙대학교 박원석 교수, 고려대학교 이재혁 교수의 두 편의 기조 강연은 회원





들이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는 ESG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배경과 최신의 기업 동향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기조 강연에 이어 연구 및 실무적 측면에서 ESG와 생물다양성을 연결하는 두 개의 특별 세션이 진행되었다. 둘째날에는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였던 “제1회 구양환경생물학상 시상식 및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초대 수상자인 한양대학교 계명찬 교수는 ‘Microplastic and endocrine disruptor: role of environmental biology in ESG era’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여 그간의 독보적인 연구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둘째날에는 학술대회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학생 및 신진연구자의 구두발표가 세 개의 세션에서 23편의 발표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발표 수준과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듯 많은 발표자와 실험실 동료 및 지도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세션에 참여하여 활발한 질의응답 및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총 일곱 개의 특별 세션이 환경생물학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각각의 심도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많은 등록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만찬이 부산과라다이아호텔에서 이뤄졌다. 학술대회 마지막 날에는 2022년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인 상명대학교 기장서 교수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으며, 두 개의 특별 세션 또한 함께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에서는 기존에 비해 경품의 수준을 대폭 높여서 마지막까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호응을 유도하였으며, 학생 및 신진 연구자 수상자들에 대해 많은 회원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ESG



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 및 제1회 구양환경생물학상 시상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에 걸맞게 학생 99명을 포함한 총 260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176편의 학술 발표가 3일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양대학교, 국제ESG협회, 한국환경연구원,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경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충북대학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특별 세션을 개최하고 후원하여, 학술대회의 양적,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이라는 매력적인 도시에서 많은 회원들과 국제학술대회 및 제1회 구양환경생물학상 시상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가천대학교 이두형 (총무위원장)

### 구양환경생물학상 신설 및 제1회 시상식

구양환경생물학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진환입니다. 먼저 「구양환경생물학상」은 우리 학회 제7대 회장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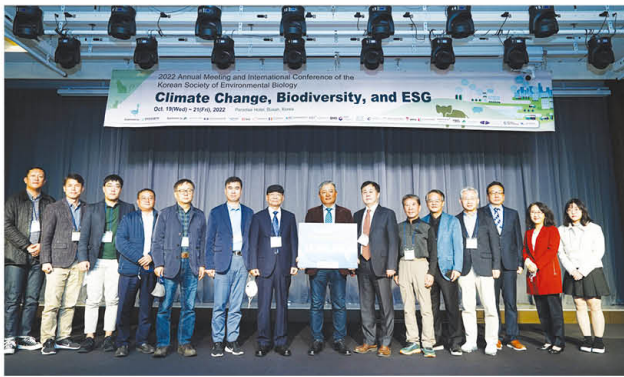




낸 구양(龜洋) 김주필(金胄弼) 교수님이 출연한 기금 2 억원으로 우리나라 중견 환경생물학자들 중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매년 1명을 선발하여 상금으로 1,000 만원을 수여하는 상입니다. 김주필 교수님은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하시어 부친은 6.25 전쟁 시 홀로 월남하셨고, 1.4후퇴 이후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12세인 김주필이 남한으로 피난하여 배재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문과생으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로 우리나라 생물학계의 거목인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강영선 교수 집에서 가정교사로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때 문과생으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하려 했으나 가정교사 집 주인이신 강영선 교수님의 권유로 강 교수님이 재직하시는 서울대학교 동물학과에 입학하였으며,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강영선 교수님의 지도로 석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12년 인연이 지속되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학위 과정 진학에 열망이 있었으나, 가정형편상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원 강사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이때 유명강사로서 입시생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보다 100 배 가까운 연봉을 받았고, 28세 때 집필한 <표준생물>은 입시생이면 누구나 한 권씩 가질 정도로 인기가 있어 30만 부의 베스트셀러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내친김에 종로 2가의 대영EMI학원을 인수하여 사업가로서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젊었을 때 학원에서 번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산업사회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지가(地價) 상승에 따른 재정 확보로 안정적인 학문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그리움은 한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뒤늦게 동국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에 입학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미를 연구하여 국내는 물론 수십년간 미국, 일본, 태국, 갈라파고스 섬 등 전 세계 110여 국에 다니면서 거미 채집여행을 하면서 멸종 희귀종을 포함한 거미 표본과 박제, 다양한 곤충 관련 자료와 광물을 비롯한 6천 종에 가깝고 30만 개체에 달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분류학에 매진하셨습니다. 40대 초반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동국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되어 정년까지 교육과 연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거미연구소를 설립하여 바쁘게 활동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물론 2000년부터 2년간 제7대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학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동안 연구 성과로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당시에 국내의 거미는 150종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900여 종에 이르고, 신종도 300여 종을 발표하였으며, 귀중한 표본만 4만 마리를 소장하고 계십니다. 정년에 이르러서는 젊었을 때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번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곳곳에서 도시 개발이 이뤄지면서 안정적인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재정기반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전쟁 중 월남하여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공부하셨기에 후배나 후학들은 조금이라도 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교 배재고등학교에 3억[2억은 3S-Sports, Spirit, Study), 1억은 박물관 운영], 서울대학교에 2억, 각 학회에도 크고 작은 금액을 회사 하셨습니다. 우리 학회에도 기금 2억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김주필 교수님의 아호를 딴 “구양환경생물학상”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교수님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기금을 출연하시면서 「환경생물학회지」가 질 좋은 SCI(E)급 학술지로 거듭나도록 요청하셨고, 우리 학회지에 실린 좋은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구양환경생물학상’ 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회 정관을 개정하여 정관 제15조 ②항에 「구양환경생물학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8인으로 구





성하며 위원은 한국환경생물학회 전직 회장 약간명, 총무위원장, 학술위원장 등과 가족대표(또는 가족 지정 회원) 1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세부규정에 수상 신청자격 및 연구업적을 반영하는 제1차 공고를 하여 8월 31일 마감한 결과 3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1차로 심사위원 각자가 9월 1일부터 1주일간 신청자 3인의 이력서 및 학회의 기여도, 최근 10년간 연구실적,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2편, 추천서 등을 꼼꼼히 살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간사에게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차 심사는 9월 13일 학회 사무실에서 신청자별 1차 심사결과를 간사가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양대학교 계명찬 교수를 제1회 수상 후보자로 선정하여 즉시 학회 회장한테 통보하였습니다. 시상식은 2022년 10월 20일(목) 부산과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시 거행했으며, 총무위원장 이두형 교수의 사회 및 개회선언, 이진환 구양환경생물학상위원장의 경과보고, 김주필 교수님의 축하영상, 조기종 학회장의 시상, 수상자 소개(사회자), 이어서 수상자 계명찬 교수의 학술발표로 제1회 시상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환경생물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구양 김주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할 것이며, 이 상이 제정되어 더 좋은 학회,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상명대학교 이진환 (제9대 회장/구양환경생물학상위원장)

## ‘환경생물’ 학술지의 위상과 국제화 노력의 첫걸음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생물학회 ‘환경생물’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지대학교 이혁제입니다. 2022년에도 한국환경생물학회 ‘환경생물’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주신 회원님들과 환경생물 논문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편집위원분과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환경생물 학술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한해임과 동시에 국제화 노력 첫걸음의 해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국내 학술지 평가지표인 2021년 KCI 영향력지수(IF)가 2022년 7월 21일 공지되었습니다. ‘환경생물’지의 2년 KCI IF는 0.68로서 논문수 152편(2019+2020), 피인용횟수(103회, 2021기준), 자기인용비율(38.8%)로 나타나 전체 생물학 분야 총 25종의 학술지 중 3위의 영향력지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환경생물 학술지가 KCI 등재지 자격을 넘어, KCI 등재지 중에서도 생물학 분야 Top 3에 자리매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귀중한 성과임과 동시에 환경생물 학술지 위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학술지 평가에서 높은 득점으로 학술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며, 총 53편 이상의 우수한 학술논문을 발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연초 편집위원회 개편을 통해서 연구 분야별로 다양한 대학·기관 소속 여섯 분의 편집위원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40권 1호

40권 2호

40권 3호

40권 4호

올해, 한국환경생물학회 및 ‘환경생물’ 학술지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Scopus, SCIE급 영문학술지 준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영문학술지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의견수렴내용을 ‘한국환경생물





학회 2022년도 정기총회(10.20.)에서 보고드리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 환경생물지를 유지하면서 Scopus 등재 후 SCIE 추진과 새로운 영문지 창간 후 SCIE 추진 등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생물지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과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가 주관하는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온라인 워크숍’에 10.27.~28. 양일간 참석하여 Scopus 등재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코 쉽지 않은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생물 학술지 발전에 대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2023년도에는 학술지 발전 관련 논의된 내용들을 편집위원회에서는 하나 하나 실행에 옮기며, 회원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분들의 학술활동에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지대학교 이혁제 (편집위원장)

## ■ 2022 수상소감

### 제1회 구양환경생물학상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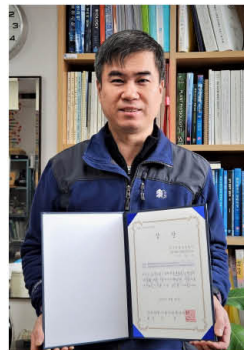


구양환경생물학상은 본 학회 제7대 회장을 역임한 구양(龜洋) 김주필(金胄弼)교수(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출연한 기금에 의해 우리나라 환경생물학 발전에 기여한 중견 환경생물학자를 매년 표창하기 위해 금년 봄에 제정되었습니다. 저도 이 상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1994년), 서울대학교 세포분화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1994-1995), 경기대학교 조교수(1996-2001)를 거쳐 2002년부터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시절 생물의 다양성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대학원시

절 분자수준의 생명활동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대학에 자리 잡은 후에는 비교생물학적 시각에서 여러 동물의 발생과 생식, 환경독성학적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세기 후반 출판된 “도둑맞은 미래”에서 지적된 환경호르몬과 남성생식력 감소는 제 연구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책임입니다. 이후 저는 환경호르몬에 관련된 연구에 공을 들였고 과기부 환경호르몬사업단 단장으로 안전한 대체 화학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과기부장관표창). 최근에는 환경호르몬의 위험과 대처방안에 관한 방송과 대중 강연을 통해 과학대중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 한 편을 타고하여 출판하는 일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매우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좀 더 역량 있는 연구자로 인정받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50대 후반에 들어서도 연구에 권태를 느끼지 않고 매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과 학회 봉사활동과 과학대중화 활동을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해 줌으로써 수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상을 받게 될 역량 있는 연구자들의 넘치는 위용을 상상하며 수상소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계명찬 (제16대 회장)

### 제33회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소감



본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2021년 “환경생물” 39권 4호에 발간된 “해양 와편모조류 *Prorocentrum minimum*에 대한 아세트아닐라이드계 제초제 프레틸라클로르의 분자 생물학적 저해 효과”에 관한 논문으로 수상한 것이다. 해당 논문은 한국

환경생물학회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22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수여하는 제3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논문을 2021년도 우수논문상으로 추천해 주신 조기중 회장님과 이혁제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학회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은 국내 농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잔류성 제초제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나타날 수 있는 생물학적 영향을 해양 외편모조류를 이용하여 규명한 것입니다. 그동안 간과됐던 육상의 농업용 제초제가 해양 일차생산자의 광합성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데 학술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논문은 상명대학교 생명과학과 김한솔 학생(박사과정)의 주도로 수행되었으며, 학부생 인턴과정부터 석사졸업까지 3년여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실험설계, 실험진행, 자료 분석과 논문 작성까지 성실하게 임해준 김한솔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인은 “환경생물” 학술지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1~2편의 논문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이 이번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의 행운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생물” 학술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며, 현재 맡고 있는 “환경생물” 편집위원으로서의 임무도 성실하게 수행하여, 학술지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 여러분들도 좋은 논문을 “환경생물”에 많이 투고하여 학술지 발전과 함께 우수논문상 수상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 기장서 (부회장, 환경생태분과위원장)

## 2022 환경생물학술상 수상 소감

먼저 부족한 저에게 환경생물학술상을 수여해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 활동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의 학회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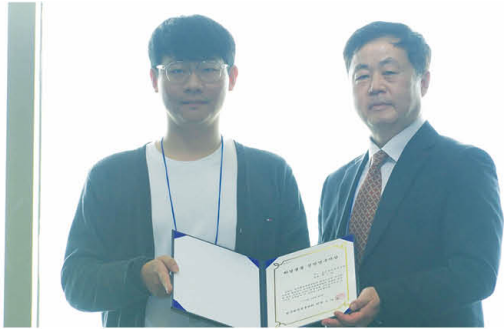
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미화 사무국장님께서 학술상 후보자 지원을 문의하셨을 때 “저보다 훌륭한 회원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지원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수여일 당일에는 감사의 표시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를 더불어 조기종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두형 총무위원장님, 홍선희 학술위원장님, 이혁제 편집위원장님과 환경생물학회지 발전에 헌신하시는 김용은 편집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한국환경생물학회의 활동은 2016년 15대 회장님이신 배연재 지도교수님의 추천과 배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환경다양성분과 위원장으로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및 건강한 생태 환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계통발생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인구증가, 생태계 훼손 등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감소 및 교란은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세대에서 해결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환경생물학회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저를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의 훌륭한 결과물들이 환경생물학회지에 투고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뛰어난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후속세대인 학생 회원분들의 학술 활동과 학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 역시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생물학술상을 수여해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연구자가 되고자 다짐하며, 다음 수상자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이황구 교수

## 2022 환경생물신진연구자상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2022 환경생물신진연구자상을 수상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상일입니다. 기후변화가 기후 위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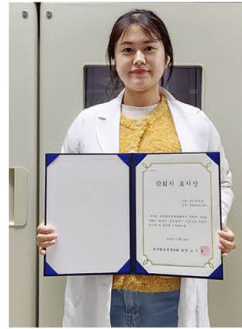


까지 이른 지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전 세계 환경생물학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서 약진하고 있는 한국환경생물학회로부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며,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아직 2년 차 새내기 박사에게 불과한 제가 환경생물신진연구자상이라는 과분하고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몇 년간 한국환경생물학회에 참석하며 뛰어난 석학분들의 연구를 보고 배운 덕택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한국환경생물학회로 인도해주시고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고려대학교 최윤이 교수님과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준우 박사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또한, 학회를 운영하시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고 많은 환경생물학자에게 열린 소통의 장과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학회장 조기종 교수님과 사무국 목미화 선생님, 그리고 학회 구성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여 한국환경생물학회 회원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상일 박사

## 2022 환경생물 학회지 표지상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2022년 환경생물 학회지 표지상을 수상한 공주대학교 조류세포생리학연구실 박사과정 문현영(Xianying Wen)입니다. 2021년에 출판된 논문 "A new record of epiphytic red alga *Madagascaria erythrocladoides*(Erythropeltiales, Rhodophyta) in Korea"에 첨부된 사진이 학회지의 표지로 선정되고 올해 표지상까지 받



게 되어서 너무 놀랍고 기쁩니다. 아직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은 저에게 상을 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조류 질병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처음 환경생물 학회지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과제 관련 논문을 쓰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홍조식물을 연구하면서 이의 특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늘 고려하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 앞으로 학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문현영(Xianying Wen)

## 2022 정기학술대회 구두 및 포스터발표 수상소감

### (신진연구자 구두발표 최우수상 수상소감)



2022년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Epigenetic plasticity enables copepods to cope with ocean acidification'라는 제목으로 신진연구자 구두발표 최우수상을 받은 성균관대학교 이영환입니다. 먼저 이번 학회를 통해 다양한 환경관련 연

구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는 DNA 메틸화 수준의 후성유전학적 수정이 미래의 기후 변화에 대한 동물성 플랑크톤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해양 CO<sub>2</sub>의 증가에 따른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요각류의 미래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후성유전학적 가소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생태분야에 후성유전체 연구를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국내외 참여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연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환경생물학



회 학회장님을 비롯하여 학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 및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연구소식으로 한국환경생물학회를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이영환

**(학생구두발표 최우수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2022년 국제정기학술대회에서 「Individual-based phenology model of *Haemaphysalis longicornis*」라는 주제로 학생구두발표 최우수상을 수여 받은 고려대학교의 송재준 학생입니다. 먼저,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작은소피참진드기는 감염병 매개체인 한편, 침입생물로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종입니다. 침입생물을 비롯해 지구 생태계는 인간 활동에 의한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대주제로서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가 강조된 것도 이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기초가 자연의 탐구에 있다고 믿으며, 생물계를 이해하는 데에 공헌하는 학자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제게 있어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과 통찰을 배우며 과학적 탐구를 위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앞으로 보다 정진하라는 따끔한 격려로 삼아, 환경생물학과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환경생물학회의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제 연구를 지원해 주신 지도교수님과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려대학교 송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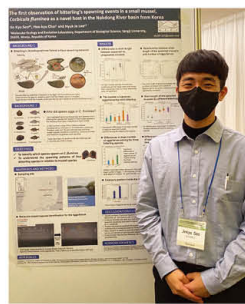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2022년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학생 구두발표 세션에서 “Characterization of clade compositions of *Burkholderia* bacteria in soil and *Riptortus pedestris* in



South Korea”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여 받은 가천대학교 김주영입니다. 먼저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와 같이 큰 상을 받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가천대학교 생태학 실험실의 이두형 교수님께 감사하단 말씀드리며, 실험실 내에서도 항상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선·후배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번 한국환경생물학회를 통해 ESG 및 환경 생태에 관련된 많은 발표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실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본 학회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천대학교 김주영

**(포스터발표 최우수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2022년 국제정기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를 하여 최우수상을 받게 된 서진규 학생입니다. 우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한국환경생물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혁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포스터를 만들며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최희규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실험실에 들어와 생활하며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분자생태및진화학 실험실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발표와 수상을 통해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무엇이든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 좋은 연구 내용들을 발표하며 제가 연구하는 분야의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환경생물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지대학교 서진규



내용으로 포스터발표 상을 받았습니다. 포스터발표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학위과정 중에 계신 학생 회원분들의 몫을 가져간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생태모델링 연구들은 한국환경생물학회에서 주로 다루는 다양한 실험 연구와는 접근방법이 다르지만, 환경과 생물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실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습니다. 특히, 생태모델링 연구는 실험 연구와 결합하여 환경과 생물 분야의 더 복잡한 영역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여 학회 내에서 모델링 연구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실험 연구자와 협력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김용은



2022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국환경생물학회 포스터발표 부문에서 「Discovery of Exotic Turtle Leeches and Cases of Parasitism on Invasive and Native Species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솔입니다. 학회에 참여하여 유익한 발표들을 듣고, 제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화여자대학교 행동생태연구실의 교수님, 박사님, 선배님과 동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재미있게 하고 있지만,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확신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학회에서의 수상을 포함해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큰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으로 알고 더 좋은 후속 연구로 다음 학회에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솔

부산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2022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과 퍼지 논리의 연계 방법에 관한

## ■ 2022 기관 및 기업 소식



“One-Stop 연구 플랫폼으로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선도하는 대표 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BDNA)은 2017년 수목원 전시·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과 고산지역 산림생물자원을 수집·보전·연구·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전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기반으로 종자보전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BDNA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수목원·정원의 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연구활동이 국가의 생물주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BDNA의 역할과 책임 (R&R)은 One-Stop 연구 플랫폼으로 대표할 수 있다. 수목원의 전문인력·시설을 활용하여 전 세계 야생 식물종자를 수집·보존할 뿐 아니라 증식·재배를 통하여 이력 관리된 바이오 소재원료와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다양한 특성정보를 제공하여 산·학·연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식물종다양성 보전과 국가 생물주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과 국민행복을 창출하는 세계적 수준의  
분석과학 개방연구원,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행복을 창출하는 세계적 수준의 분석과학 개방연구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질병, 재난, 재해 등의 사회적 문제와 환경오염, 에너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첨단 분석기술 개발, 과학기술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과 기초연구의 난제 해결 등 국내·외 연구기관의 새로운 연구영역 개척을 위한 선도 연구장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KBSI는 첨단 연구장비 및 요소기술 개발과 국산장비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연구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KBSI는 '21년 7월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7년까지 4 GeV, 피코미터급 다목적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여 기초과학 분야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첨단 바이오, 반도체, 환경 에너지 분석과학을 진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서 중 복



**식품안전 혁신기술에 기반한 고객가치 실현 기업**

(주)세니젠은 식품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No.1 Food Safety Total Solution기업” 으로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물정보학 기반 식품안전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초고성능 유전자마커 자동 발굴 시스템을 통해 식품위해미생물 초고성능 유전자마커를 보유하여, 글로벌 최초로 NGS 패널 특허를 취득하였고, 압도적 수준의 식품위해미생물 Big data를 보유하고, 신규 유전자마커 선발을 위한 유전체정보 Database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맞춤형 신속 미생물검출 PCR kit Genelix™와 대량시료 One-Stop 미생물 검출 panel GeNext™ 를 통해 식품안전을 위한 고객 서비스를 진행중이며, NGS기반 유전체 분석 서비스인 Geneka™를 통해서 small genome부터 Large genome까지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지바이오(SGbio)은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생명공학, 병원연구등에 사용되는 각종장비, 시약,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FINEPCR 정식 대리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외산제품이 주로 이루고 있는 시약제품을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transfection, Taq, buffer등 실험에 사용되는 제품의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솔루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1965년 설립된 후 국내 최초로 PVC(폴리염화비닐)를 생산한 데 이어,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E(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CA(염소·가성소다), ASR, TDI 등 각종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통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초소재부터 친환경가소제인 Eco-DEHCH, 수소첨가석유수지, 국내 최초 XDI 개발성공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선도 화학 기업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은 나아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업사이클링 기술 투자, 대체육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신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한경국립대학교/인문 생태 융합 리질리언스 연구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및 위기의 증가를 이해하고 적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사회생태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자 리질리언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연구, 공공, 환경, 직업, 건강, 공공정책 및 도시부문의 적용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번영과 위기를 동시에 촉발시킨 효율성이란 사회 가치가 빠르게 적응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며, 어떠한 교란이 오더라도 사회시스템과 생태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융합된 사회생태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이 동일한 기능, 구조, 정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뜻하는 리질리언스와 관련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실은 다양한 생태분야(복원, 조경, 생태, 토양, 농업, 기후변화 등) 박사급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사회분야 구성원을 포함하여 사회생태시스템의 이해, 평가, 처방에 이르는 전 분야를 고루 커버할 수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특히 농업생태계-도시생태계 간 상호작용, 생태복원, 외래종 관리,

토양보존, 탄소저장 등의 연구 주제가 환원주의적으로 각기 연구되는 것이 아닌, 통합적 사고에 의한 시스템 내 요소기술로써 고려되며, 시스템의 리질리언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홍선희** 교수

## KEI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 경제 ·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 수행

한국환경연구원(KEI)은 1993년 1월 한국환경기술개발원으로 출범, 국내 유일의 환경분야 국책연구기관이자 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으로서 건강한 자연,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국민과 정책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 연구와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환경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정진 중이다. 특히 미래 환경이슈는 선도적인 중장기 연구로 미리 준비하고 현안 문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내년에 개원 30주년을 맞게 되는 KEI는 기존의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및 국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정책 관련 공신력 있는 데이터 제공 등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추어 KEI도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의,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KEI로 거듭나고자 한다.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이창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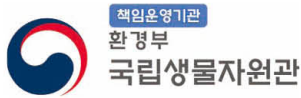


# BMS

"WE DELIVER SCIENCE"

비엠에스는 1988년부터 생명과학과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한 최신의 기술과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여 생명과학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기초 연구 장비 제조와 개발에도 그 영역을 넓혀, 생명과학 연구의 동반자로 거듭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기초 소모품부터 최신 기술이 집약된 연구, 진단 장비까지, 생명과학 각 분야별 관련 제품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하여, 국내 최고의 제품 Coverage 및 신속한 배송으로 연구자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동물 생산 및 관련 기자재 설비 제조, 다양한 원심분리기 및 농축기 등 실험실 기초 장비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탁 실험이 가능한 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연구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각종 워크숍 및 실험까지 가능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생명과학 연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생물 분야에서는 ▲독일 MACHEREY-NAGEL 브랜드(취급 제품: 핵산 추출 키트, 컬럼, 필터) ▲스위스 INTEGRA 브랜드(취급제품: 파이프 자동화 장비)를 국내 연구자들에게 소개하여 연구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bms.kr](http://www.bms.kr) / 제품 문의: 02-3471-6500)



##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연구를 선도하는 대표 국립 연구기관

국립생물자원관(NIBR)은 2007년 설립된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국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시·교육 기

능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연구와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요 기능은 국가 생물자원의 확보·소장·관리를 통한 생물자원 주권 확립, 생물산업지원 기반 구축 및 유용성 연구, 한반도 자생생물 전시 및 생물다양성 교육,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법 이행 지원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자생생물 조사 발굴을 통한 국가생물종목록 5만 6천 248종 구축, 자생생물 확증표본 정보 3만 7,034종 확보, DNA 바코드 정보 9,935종 확보 등 생물다양성 관련 전문정보를 학계를 비롯한 산업계에 제공하여 생물다양성 연구 중심 기관의 역할을 수행 중이며, 이와 더불어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생물소재의 분양과 관리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야생생물소재연구동을 올해 4월 개소하여 생물자원 활용 인프라 구축과 소재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철새정보네트워크 구축, 야생동물 첨단 R&D 연구와 해외 생물다양성 공동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3년 1월을 목표로 생물 분류군 중심의 기존 조직구성에서 기능 중심별 조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홍보팀장 박 태 서



## 유전체 정보 분석을 선도하는 대표 기업

(주) 디엔에이링크는 2000년 바이오산업 및 유전체 분석 서비스 상용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맞춤형 의학 분야의 선두 기업을 목표로 하며, 최신 유전체 분석기술들을 적용하여 인간 및 다양한 생물의 DNA, RNA 등 다양한 유전체 정보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유전체 데이터를 생성하고, 20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해석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





내는 물론, 아시아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 유전체 분석을 통한 의료기술, 신약개발 등 맞춤형 의료산업의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조기 진단에 이바지하고, 유전적 차이에 따른 개인에 적합한 맞춤 치료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디엔에이링크 학술지원팀 류현철



## NGS를 활용한 국내 자생자원 DNA 바코드 개발 전문 기관

(주)젠큐브플러스는 국내 자생자원 DNA 바코드 개발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연구 전문기관으로 2015년 GENCUBE를 시작으로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DNA 바코드 기술 이전, 특허 출원 등 기술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연구진들의 동반자로서 다수의 정부과제 수행을 통한 국내 생물자원의 유전체 확보 및 DNA 바코드 개발, 연구용 시약 및 기자재의 개발 및 공급 등 생명 공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활용한 연구자분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판넬을 제작 및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Nanopore의 도입으로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자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분들의 성공적인 연구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Back to the Basics”: 해충 방제를 위한 행동-생태학적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 해충 유입과 돌발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지속 가능성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행동-생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충의 발생 감시와 이에 따른 선제적 방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가천대학교 생태학 실험실은 2015년부터 질병관리청 지정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경기권 거점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주요 질병 매개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충의 발생과 행동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과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Individual-Based Model(IBM)과 같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농업 해충인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대상으로 행동-생태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당 노린재류의 공생균인 *Caballeronia*의 전달-획득 기작을 규명하고 공생 관계 형성에 따른 행동-생리학적 형질 발현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생리-생태학적인 융합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곤충연구소  
Korean Entomological Institute

## 한국을 대표하는 곤충연구소

한국곤충연구소는 1963년 3월 1일 고려대학교의 5번째 부설연구소로서 건립되었으며, 곤충학 분야의 순수 및 응용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학술적 발전을 견인하고, 실사구시의 건학 이념에 부응하는 곤충학 분야의 실용화를 지향한다. 또한 한국산 곤충상의 정리, 국내외 곤충자원의 탐사 및 확보, 멸종위기 곤충류의 보전, 해충의 방제, 유전공학적 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지표종의 연구 등 현재와 미래의 곤충 분야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곤충학 분야를 국제적으로 선도하고자 한다.

한국곤충연구소 소장 배연재





**고려대학교 바이오매스활용연구실**  
**유해 조류 및 조류 유래 독성물질 제어를 위한**  
**천연 물질 소재 개발 연구 수행**

지구 온난화 및 산업의 다양화 등으로 녹조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유해 조류(남세균) 및 유해 조류 유래 독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유해 조류 및 조류 유래 독성물질 제어를 위하여 본 연구 사업에서는 천연 광 물질 등 천연 물질 소재를 이용하여 유해 조류 및 조류 유래 독성 물질 제어가 가능한 천연 물질 소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향후 유해 조류 및 조류 유래 독성물질 제어용 천연물질 소재 개발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로 녹조 현상에 대응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사업은 환경부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 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중심 문화조성과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현장정책 전문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은 1967년 한국과학기술후원회로 출발하여 국민의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가 자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왔다.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개편되면서 기존의 과학기술 대중화 및 문화사업에 더해, 학생들의 수학·과학·정보(SW·AI) 역량을 키우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문화확산과 창의인재 육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주요사업으로 과학기술문화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정책지원, 체험·참여형 과학문

화축제 및 과학소통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학문화 이슈 선도 및 과학기술 공감대 형성, 미래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양성 체계 구축, 교사 역량 전문성 강화 및 성장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이 국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겠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 율 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설립 이래,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발전해 왔다. 「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인류에 공헌하는 해양과학기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수월성과 전문성을 갖춘 집단지성의 허브로, 그리고 글로벌 해양연구의 중심점으로, 바다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는 해양 자원과 영토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멀리, 더 깊이, 누가 먼저 해양을 탐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 전문 과학기술 연구·교육기관으로 도약하려는 해양과기원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교양기초교육의 정립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 교양학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RILE)는 문명 전환기를 맞은 대학 고등교육의 목적과 역할을 재성찰하고 교양기초교육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를 마련하고자 2017년 설립되었다. RILE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 전공자가 균형적인 비율로 포진해 있다는 강점을 무기로 미래형 인재, 즉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인문 소양을 겸비한 창의적·



성찰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양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양학 연구에 매진했다.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①융복합을 포함한 교양 교과목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운영, ②교양기초교육에 관한 각종 국내외 학술행사 주최·주관, ③교양교육 학술총서 발간 등을 포함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RILE는 짧은 연혁에도 오랜 교양교육 경력을 가진 구성원들의 연구와 협력을 기반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본 연구소는 교양학 연구와 교양기초교육의 선순환을 확립하고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2022 특별 기고

### 환경생물학과 삶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3대 회장 오희복

근래에 무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정보와 개인의 일상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전 지구적으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 영향력도 막강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낸 새로운 세상의 단면이기도 하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염기서열분석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다양한 생물의 유전체 해독에 따른 유전자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일례로 소량의 수계 물 시료로부터 세균, 곰팡이,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등 다량의 미생물 군집분석이 수일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생물학은 생태계 구성원인 다양한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생태계의 기능을 밝히고자 하며, 특히 환경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생물학 연구로 볼 수 있다. 근래에 생물의 유전체, 전사체 해독으로 대량의 생물정보가 생산되면서, 환경생물학 분야에서 각종 생물 간 또는 생물과 환경 간에

형성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상호작용 등 생태계의 기능을 정밀하게 밝히는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녹조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생태계에서 네트워크분석의 영향력과 큰 흐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녹조 발생 남세균인 *Microcystis* sp.의 우점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배양이 가능한 일부 미생물,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근래에는 미생물 메타유전체 분석으로 얻어진 대량의 생물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네트워크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술적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 내 모든 미생물을 대상으로 수생태계를 이해하려는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도 소비자로서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며, 또한 생태계 작동원리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1990년대 후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미생물실에 근무하면서, 한국환경생물학회 임원으로서 제6대 최신식 회장님으로부터 학회 운영과 대외 협력 등에 대하여, 제9대 이성규 회장님으로부터 회원 또는 학회간의 화합과 친목 유지 등에 대한 훌륭한 식견과 know-how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귀한 경험은 2012-2013년 학회를 맡아 오롯이 학회 운영에 적용하였고, 회원으로서 평소에 느꼈던 학회에 대한 바람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나름 반영할 수 있었다. 국내외 학회에서 환경생물 분야의 선배, 동료, 후배 연구자 등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연구와 삶에 귀감이 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명언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의 의미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끝으로, 2023년 정년을 앞두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 녹조, 적조, 미세조류와 미생물, 생물정화 등 환경생물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연구소, 대학, 학회 등을 통하여 산·학·연·관의 많은 인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축된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즉, 소셜네트워크가 매우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환경생물학 연구와 개인의 일상 삶 모두에서 풍성하고,



유익한 학술적 네트워크와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노력은 더없이 중요하고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 ■ 학회회원동정



연세대학교 김응빈 교수는 2022년 11월 29일부터 유튜브 채널 <김응빈의 응 생물학> 운영하며 생물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야기를 대중 눈높이에 맞추어 재밌게 전달하고 있다.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kimyesbio>

### ■ 2023 학회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 계획
임시총회		2023년 4월 예정
정기총회		2023년 10월 예정
이사회		필요시 개최
학술활동	춘계학술대회	2023년 4월 20일~21일 예정
	정기학술대회	2023년 10월 예정
	학회지 발간	3, 6, 9, 12월말 (연 4회 발간) Scopus 등재 및 국제화 추진

### ■ 학회역사

1981. 03 한국환경생물학회 창립총회 개최  
서울대 교수회관, 초대 회장 정영호 선출

1983. 09 환경생물 창간호 발간

1990 ~ 1991 제2대 회장: 최임순

1992 ~ 1993 제3대 회장: 윤일병

1994 ~ 1995 제4대 회장: 위인선

1996 ~ 1997 제5대 회장: 유광일

1998 ~ 1999 제6대 회장: 최신석

2000 ~ 2001 제7대 회장: 김주필

2002 ~ 2003 제8대 회장: 전계식

2004 ~ 2005 제9대 회장: 이성규

2006 ~ 2007 제10대 회장: 이진환

2008 ~ 2009 제11대 회장: 장 만

2010 ~ 2011 제12대 회장: 김진규

2012 ~ 2013 제13대 회장: 오희목

2014 ~ 2015 제14대 회장: 한명수

2016 ~ 2017 제15대 회장: 배연재

2018 ~ 2019 제16대 회장: 계명찬

2020 ~ 2021 제17대 회장: 최종순

2022 ~ 2023 제18대 회장: 조기중

### ■ 임원명단

임기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연번	직위	이름	소속
1	회장	조기중	고려대학교
2	부회장	기장서	상명대학교
3		김백호	한양대학교
4		김응빈	연세대학교
5		박상울	제주대학교
6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서경석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		서종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		안치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		옥용식	고려대학교
11		이성은	경북대학교
12		이혁제	상지대학교
13		임성은	(주)아세아항측
14		진연선	한양대학교
15		채진호	해양환경연구소



연번	직위	이름	소속
16	부회장	최윤이	고려대학교
17	총무위원장	이두형	가천대학교
18	대외협력위원장	최윤이	고려대학교
19	재무위원장	남인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	학술위원장	홍선희	한경대학교
21	학술부위원장	박익주	경북대학교
22	편집위원장	이혁제	상지대학교
23	편집이사	김용은	고려대학교
24	연구윤리위원장	옹태순	연세대학교
25	포상위원장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6	ESG산학연위원장	옥용식	고려대학교
27	집행위원장	이강현	(주)마린액트
28	홍보정보위원장	신동만	KBS
29	환경다양성분과위원장	이황구	상지대학교
30	환경생태분과위원장	기장서	상명대학교
31	환경생태분과이사	주재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32	해양환경생물분과위원장	신현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3	해양환경생물분과이사	박범수	한양대학교
34	육상수자원환경생물 분과위원장	원남일	(주)지오시스템리서치
35	산림·토양·농업환경생물 분과위원장	천경식	상지대학교
36	산림·토양·농업환경생물 분과이사	김동욱	상지대학교
37	응용환경생태분과위원장	손진오	국립생물자원관
38	응용환경생태분과이사	최원균	국립생태원
39	응용환경생태분과이사	이도훈	국립생태원
40	생태독성 및 환경위해성 분과위원장	염동혁	안전성평가연구소
41	재난 및 유해 환경생물 분과위원장	서종복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2	기후변화환경생물 분과위원장	서창완	국립생태원
43	ESG 선도분과위원장	계명찬	한양대학교
44	여성환경과학분과위원장	정형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번	직위	이름	소속
45	환경신진인력분과위원장	이두형	가천대학교
46	감사	김동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7		윤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공지사항

### 환경생물 학회지 투고 안내

환경생물(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로 연 4회(3, 6, 9, 12월 말일)발행 하며, 저널 홈페이지(<http://www.ebr.or.kr/>)에 원문제공서비스를 통해 창간호부터 가장 최신 논문까지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seb.org>)을 이용하며, 심사료는 없습니다. 심사완료 후 최종 채택된 원고는 영문 제목/초록/표그림의 영문 교정서비스 무료제공 합니다.

### 회비납부안내

한국환경생물학회 회비를 안내합니다. 우리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재정확보를 위하여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시에는 반드시 납부자의 성함과 소속기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회 원 구 분	연 회 비
학생회원	30,000원
정회원	50,000원
평의원, 편집위원	100,000원
분과위원장, 이사, 감사	200,000원
부회장	300,000원
회 장	500,000원
예금계좌: 국민은행 461301-04-391535 (예금주: 한국환경생물학회)	



후 원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국립백두대간수목원**  
Baekdudaegan National Arboretum

**Sanigen**

**SGbio**

**국립한경대학교**  
HANKYONG NATIONAL UNIV.

**한화솔루션**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www.kisti.re.kr

**KEI** 한국환경연구원

**BMS**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Precision Genomics”  
**DNA LINK**

**GENCUBE PLUS**

**MOLECULAR ECOLOGY & EVOLUTION LAB**

상지대학교분자생태및진화학실험실

**가천대학교 생태학실험실**  
Gachon University Ecology Laboratory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곤충연구소**  
Korean Entomological Institute

**KOREA UNIVERSITY**  
**A TIME TO BUILD**

고려대학교 바이오매스 활용 연구실

**한국과학창의재단**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ENOMIC BASE**  
(주)제노믹베이스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래생태(주)**

**AQUOSYS** (주)한국아쿠오시스  
Korea AQUOSYS

**TEO**  
A Company of Life Science

**제주대학교**  
자율운영중점연구소